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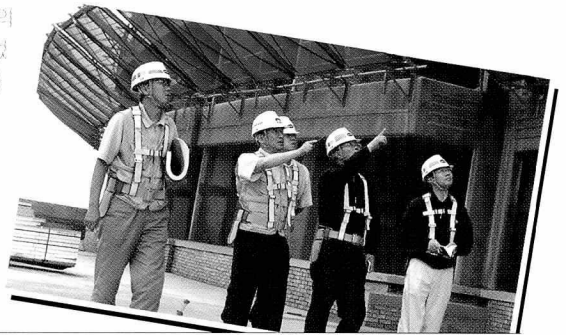
안전하고 편안한 최고의 실버타운 건설에 총력!

한국교직원공제회 창녕 서드에이지 실버타운 신축공사 현장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건 의료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여 인구 구조의 고령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2018년이면 14.3%로 유엔이 고령화 사회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14%를 넘어서고, 평균연령 100세 시대가 열리는 현실 속에 고령자를 위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와 시설이 건립되고 있는 창녕 서드에이지 실버타운 현장에 무사고 안전활동으로 고품질 실버타운을 짓고 있는 현장을 찾았다.



‘서드에이지 실버타운’ 222세대, 연면적 1만 2천 평으로 국내 최대 ■■

경남 창녕에 한국교직원공제회(건설사업소 소장 김영성)에서 신축 중인 ‘서드에이지 실버타운’은 회원들에게 노후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사업의 시너지효과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건축 중인 이곳은 지하 1층, 지상 15층, 222세대로 대지면적 8,600여 평에 연면적만 1만 2,000여 평으로 국내 최대 규모이다.

특히 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을 비롯해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 노래방 의료시설, 보육시설, 골프연습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게 된다. 2005년 4월 착공, 2007년 준공 예정인 ‘서드에이지 실버타운’은 안전을 기본으로 고품질 최고의 실버타운으로 탄생되고 있다.



▲ 김 영 성 현장소장

성실한 안전관리비 집행은 무재해 현장의 밑거름 ■■

무재해 현장의 주체는 근로자와 시공 업체에 있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인식이 수도권 주변 건설 현장보다 다소 부족하다는 지방 건설현장에서는 관리감독을 하는 발주처의 관심이 무재해 준공을 좌우한다.

이 곳 '서드에이지 실버타운' 현장도 시공사와 하나가 되어 무재해 준공을 향하고 있는데 한국교직원공제회 현장사업소가 그 역할을 다하여 무재해 시공을 이어가고 있다. 무재해 시공에 있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정확히 집행되고 있는 안전관리비이다. '안전관리비를 성실히 100% 집행만 해도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김영성 소장의 의지와 같이 이 곳 현장의 안전관리비 집행은 투명하고, 철저하다.

현장근로자는 자신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 이를 위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안전관리비의 정확한 집행이 그 밑거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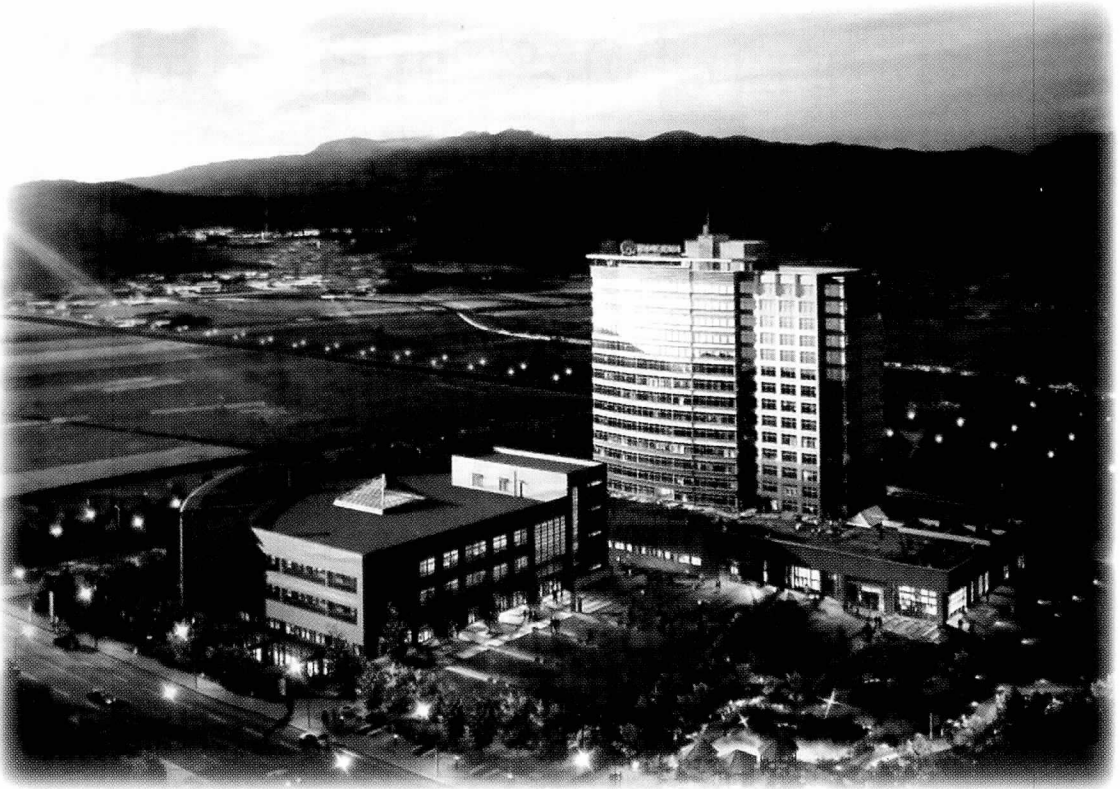
특히, 건설안전기술사이면서 교직원공제회에서도 굵직한 수많은 현장을 경험한 김영성 소장은 건설현장에서의 인적손실에 대해 근로자가 총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테러를 당한 것도 아니며, 전쟁터에 나간 것도 아닌데 현장에서 사고로 인적손실을 입는 것은 인간중심의 인류애가 사라진 것으로 이는 암흑과 같은 건설현장이라고 강변하며, 인간애가 살아 있는 건설현장을 위한 성실한 안전관리비 사용을 강조한다.

다각적인 안전활동으로 무재해 준공은 이루어진다. ■■■

개인 스스로가 의복을 단정히 하면 몸가짐도 조심하게 되듯이 현장이 깨끗하면 결국 모든 작업자도 내 몸 지키기에 앞장선다. 건설현장에서의 정리, 정돈 및 청결은 품질, 환경 뿐만 아니라 안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곳 한국교직원공제회 창녕 서드에이지 실버타운 신축공사현장의 무재해 준공의 비결인 주요 안전활동에는,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구부 덮개를 비롯한 난간대,






작업발판, 사다리 등 10개 주요 개소를 선정·관리하는 완벽한 안전 시설물 설치가 있고, 매일 작업 전 안전작업지시서 배포, 건강 체크, 안전체조, 작업지시 및 위험요인 파악, 지적확인 후에 시작하고, 작업 중에는 Digital 카메라를 이용, 불안정한 상태 및 행동을 적발·시정 조치하며, 작업 후 정리정돈으로 이루어지는 일일 안전CYCLE 운동이 있다.

이 밖에도 가설공사의 적정한 계획 및 설치 의무화와 신바람 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한 한 마음 한 가족 운동들이 서드페이지 실버타운 현장을 무재해 준공으로 이끈다.

사람이 없으면 건물도 필요 없다 ■■

경남의 실버산업의 육성을 마련함과 동시에 실버개념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사회복지시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고의 '장년 서드페이지 실버타운'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곳에는 '사람이 없으면 건물도 필요 없다' 라는 말이 있다.

김영성 현장사업소장의 생활철학이기도 한 이 말은 건설현장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이 곳 현장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이기도 하다.

앞으로 입주할 고객의 안전에까지 고려하여 준공이후 2개월의 철저한 시운전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무재해 준공의 의지를 담아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를 기대해 본다.  <최종덕 기자>